

행동주의문학 논의와 작품상의 변용 연구

- 「단층」지 작품을 중심으로 -

李 海 年*

차 례

- | | |
|--------------------------------|-------------------------------|
| I. 머리말 | IV. 행동주의문학 논의와 작품상의
관념적 변용 |
| II. 행동주의 사상의 변용과 「단층」
지 작품들 | V. 맺음말 |
| III. 「단층」 지 작품의 행동주의적
특질 | |

I. 머리말

본고는 우리 문단에서 1935년 1월부터 1936년도까지 걸쳐서 논의되었던 행동주의 문학논의의 전체적 양상과 특성을 살펴서, 한국 근대 문학 비평사에 있어 하나의 의미있는 흐름으로 자리매김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이다.1)

* 동서대학교 인문사회학부 전임강사

1) 이해년; 「1930년대 한국 행동주의 문학론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4.2), pp. 118~139.

참고 ; 프로문학자의 행동주의 문학론 -지식계급론에의 편중성-, 「한국문학논총」 제 16집, (한국문학회, 1995.12), pp. 311~334.

참고 ; 초기의 행동주의 문학론 연구 - 순수문학자의 사회적 관심 -, 「한국문학논총」 제 18집, (한국문학회, 1996.7), pp.109~129. 참조

특히 본고에서는, 행동주의문학 논의와 마찬가지로 작품상의 구현도, 불문단의 행동주의와는 달리, 우리문단 상황에 따라 변용되어졌음을 살피려고 한다. 이를 근거로 지금까지 심리주의 작품으로만 평가되었던 『斷層』誌의 몇 작품들 속에 이 행동주의 사상이 관념적으로 강하게 추구되어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²⁾

II. 행동주의 사상의 변용과 『단층』지 작품들

프랑스 행동주의 문학작품과 일본의 행동주의 문학작품은 다르다.³⁾

원래 프랑스 행동주의 문학 속에서 나타나는 理智는, 에스프리의 행동 속에서 그의 발생, 성장을 보며, 그 기능과 원리를 한정시킬 뿐이며, 종래의 문학형식에서 보는 것과 같은, 인간의 '이지적 통제에 의한 인간성의 전체적 파악'을 거부한다.

그러므로 행동주의문학에서의 '소설의 구성이나 인물의 활동적 발전'

좋고 ; 달기의 행동주의 문학론 연구 -순수문학자의 절충적 평가-, 『어문교육논집』제 15집, (어문교육연구회, 부산대 국어교육과, 1996.12), pp. 243~258.참조

2) 『단층』지의 몇 작품만을 본고의 연구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 때문이다.

첫째, 『단층』지의 발간이 1937년 4월에서 1938년 3월에 이루어졌는데, 1935~36년 사이에 행해졌던 행동주의문학 논의와의 시간상의 간격은, 작가의 사상에 영향을 미치고 작품상으로 구현되어 나타나기에 충분하다는 점이다.

둘째, 『단층』지의 작품 속에 지식계급의 사회현실과 불안인식, 능동정신과 행동에의 갈망 등 행동주의에 관한 논의들이 관심있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세째, '행동주의 문학은 프로문학이 심리주의의 구투를 쓴 것'으로 본 小松清의 견해나, '인테리의 옹호를 위해 자신의 내성적 심연에 퇴화한 것'으로 본 한효의 견해 이후, 행동주의 성향이 큰 작품이라도 심리주의 작품으로만 단정될 가능성이 커진 점이다.

네째, 작가 최정익이 『단층』1호(1937.4)에 자의식 과다증을 비판하고 능동정신을 추구하는 평론 「D.H.로렌스의 性과 자의식」을 쓰는 한편, 『단층』2호에는 <채달리 부인의 연인>과 같은 구상을 가진 소설 <자극의 전말>을 써 보인 점 등이다.

3) 이해년 ; 『1930년대 한국 행동주의 문학론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2), pp.13~27, 44~50. 참조

은, 개념적으로 樣式化된 의도적 합리적 발전이 아니고, '순간마다 그 형식을 재구성'해 가는 '자발적인 창조적 전개'라는 특징이 있다. 또 예술행동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동기 또는 의도적 순간이 제작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에만, 순간순간 飛躍的 變化가 변죽이는 '창조로서의 행동의 진실'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래서 앙드레 말로의 작품은, 앞서 말한 것처럼, 인간의 근원적인 고통을 느끼는 주인공이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생사를 가름하는 절망과 공포의 극한 상황에 몸을 던짐으로써, 과감한 혁명적 모험을 통해 죽음에 대한 집념으로부터 벗어나며, 순간순간마다 자유로운 의지에 의한 새로운 인간의 조건 및 창조적인 인간성의 새로운 모습을 직관하고, 발견, 인식하게 되는 상황이 그려져 있고, 또 체제에 대한 반항이 그려져 있다. 이것이 바로 행동정신의 진수이다.

그러나 일본의 행동주의 작품들은 그 작품 구조상의 완전성을 보이지는 않고, '행동을 지향하는 지식인의 의지.' 즉, 극한 상황 속에 자신을 던짐으로써 인간의 새로운 삶과 조건을 인식하려는 지향성을, 작품 속에서 주인공의 갈등을 통해 "관념적으로 표출"한다.

주인공들은 종전의 억압된 상황과 의지의 분열, 갈등에서 벗어나거나 '탈출'하여 새로운 세계로, 또는 '인간의 극한 상황'으로 '향하는 지점'에서 있거나, 그 세계에 '뛰어드는 지점'에서 작품은 끝난다.

앙드레 말로가 보여준 죽음에 인접한 극한 상황에서 순간순간 감지하는 생의 새로운 인식이나, 의지의 자발성에 의한 자유로운 창조, 그리고 이에서 느끼는 인간성의 새로운 전체적 파악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극한 상황에 뛰어들기 이전에 주인공이 느끼는 억압적인 상황과 그로 인한 심리적 갈등과 분열을 제시하는 데에만 더 주력한다.

우리문단에서 전개되었던 행동주의문학 논의의 본질과 전체적인 특성을 토대로 하는 한편, 불문단 행동주의의 본질을 토대로 하고, 일본문단에서의 변용사실을 고려한다면, 우리문단에서도 행동주의가 미숙하게나마 반영된 작품의 존재는 더러 찾아볼 수 있다.

주로 『斷層』誌의 작품들로서, 『단층』1책 (1937.4) 속에 게재된, 兪恒林의

<馬券>, 李秉昌의 <騎士唱>, 金利錫의 <감정세포의 顛覆>과, 『단층』2책(1937.7) 속에 게재된, 具然默의 <유령>, 유향림의 <區區>, 최정익의 <刺戟의 顛末> 및 『단층』3책(1938.3) 속에 게재된, 김이석의 <幻燈> 등이다.

행동주의의 본질적 개념들, 즉 능동정신, 에스프리의 자발성, 의지의 자유주의, 행동의 필요성, 인간의 전체성 파악 등의 개념들은 우리문단의 작가들에게도 그대로 인식되어진다. 그러나, 앙드레 말로에서와 같은 창작상의 직관이나 정치적 모험성은 보이지 않고, 당시 문단상황 때문에 프로문학 퇴조 후에 무기력해진 지식계급의 현실문제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변용되어진 것이다. 이는 우리문단의 행동주의 논의가 프로문학 우위적 입장으로 이루어졌던 것과 같은 현상이다.

물론 작품구성상의 완벽을 보이지 않고, 주제의식으로서의 ‘행동의지의 표명’은 주인공의 상황설정이나 주인공이 벌이는 논리적 토론 등을 통해서 주로 ‘관념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그러나 유향림을 비롯한 단층파 소설가의 작품들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심리적인 흐름, 즉 지식인의 무력감과 허위 생활을 다루면서도, 그 의식의 근거에는 행동과 능동의지에 대한 갈망, 현실에 대해 능동적인 태도를 표명하려는 갈망이 짙게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에 이미 우리문단에도 행동주의 논의가 전개되었었고, 이와 관련하여 지드류의 행동주의 소설에 대한 지향 욕구가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었으므로, ‘단층파’ 소설의 특질을 ‘심리주의’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들 작품 속에 나타난 ‘강렬한 능동 의지의 표명’과 ‘행동에의 강렬한 지향성’에 주시할 필요가 있다.

능동 의지, 행동에의 욕구, 실천성, ‘행동을 위한 지성에서의 탈피’, 이론의 허망함 인식 등의 행동주의 사상은 주인공의 대화 곳곳에서 관념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결국, 유향림의 <마권> <구구> 두 작품의 주제 및 경향도 예외는 아니어서, 주인공 ‘만성’이 감행하는 「집」으로부터의 ‘탈출’은 ‘무위한 허위의 삶, 가면의 삶, 形骸의 삶’으로부터의 탈출이며, 새로운 삶을 지향하는 행동 또는 실천이었다. 또 <구구>의 ‘면우’는 웅색한 지식(기성질서, 윤리)을 탈피하고, 발랄한 청춘의 의지대로 행동하고·실천하려는 결심을 보이지만,

갈림길에서 즉, 갈등의 상징인 '녹주의 유곽'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갈등 단계에 있는 것이다. 특히, 주인공이 보여주는 철저히 '논리적인 사유와 비판'들은, 모두 무기력한 이성과 이념에서 탈피하려는 욕구와, 행동에의 지향 욕구를 표현한 것이었고, 지성과 행동이 결별한 현재 상태에 관한 비판이어서, "행동주의 사상이 관념적으로 반영된 특성"을 보인다.

우리문단에서 행동주의 사상을 반영하고 있는 『단층』지의 몇 작품이 가지는 제 특질들은 <다이빙>이 보여준 제 특질과 모두 유사하다는 점이 중요하다.

곧, ①프로문학가였던 지식계급을 주인공으로 하며, ②프로문학 퇴조후 파시즘에 대한 패배감과 불안감을 느끼는 상황설정 ③사업가나 문학자나 하는 직업선택문제로 갈등하며, 신념을 포기하고 생활을 위해 취직할 것인가, 아니면 생계를 포기하고 이데올로기를 끝까지 고수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갈등하며, 무력한 생활을 하는 점 ④그 소극적 퇴폐로부터의 탈피가 바로 능동정신의 구현이며, 이것이 바로 주체의식이라는 점 ⑤작품구성상의 완벽을 보이지 않고 아무 구체성이 없는 관념적인 결말을 보이는 점 ⑥끝부분의 푸념 등이 모두 유사하게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함대훈이 「지식계급의 불안과 조선문학의 장래성」에서 제시했던 구체적인 창작방법과도 내용상 같은 설정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또 한 가지 덧붙일 것은, 함대훈이 제시한 구체적 창작방법도 우리문단에서 행동주의 작품으로 시도된 작품들이 관념적으로 구현되는 데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함대훈은 조선의 지식계급이 막연히 불안 고민 속에 헤매인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과연 조선의 지식계급은 어떻게 고민하고 어떻게 절망적 정신을 갖고 있으며, 어찌하여 그들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 헤매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진실성 있는 붓끝으로 묘사해야만 조선문학과 지식계급의 연관성을 더욱 밀접하게 만들 수 있고, 여기에 인테리를 취급하는 조선문학의 장래성이 있다고 말하고, 그 구체적인 창작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근대 프랑스 문학의 불안시대에 있어서 제 작가가 취급한 것과 같이, 그들의 지식계급이 지식을 취급하여, 현실을 해체하는

理智, 생을 구하는 성급한 심정, 범람하는 사상 가운데 인테리가 여하히 퇴색된 현실의 파편으로서 꿈을 만들고, 여하히 쇠약한 문학을 남긴 것을 그려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창작이론을 위해서 창작을 잊어버리고, 생활이론 때문에 생활을 잊어버린다는 기묘한 그러나 시사에 풍부하고 미묘한 딜레마에 빠진 초조와 고통', '우는 심정과 그 옆에서 냉소하는 이지'와의 사이에 끼인 혼의 고민, 행동의 불능, 말하자면 세상에서 살기 어렵다는 곤란한 것을 몸으로서 표시하는 것을 그려야 하는 것이다.⁴⁾

이러한 창작 방법의 구체적인 제시는 행동주의문학 논의상의 최초의 시도였으며, 함대훈의 구체적인 창작방법은 단층파의 작품 창작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되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즉, 행동불능에의 인식, 냉소하는 이지, 지식을 취급하여 현실을 해체하는 理智, 범람하는 사상과 퇴색된 현실, 쇠약해진 문학, 창작이론 때문에 창작을 잊고, 생활이론 때문에 생활을 잊는 현실, 생활의 곤란을 몸으로 표시하는 것, 딜레마, 초조와 불안 등의 면모는 단층파 작품들이 보여주는 주된 상황 설정이며 주제이다.

그러나 이후 우리문단의 행동주의 작품이 정치적, 혁명적 모험과는 무관하게, 지식계급문제에 초점을 두고 관념적으로 구현되는 근본동기가 되었다고 단정해 볼 수도 있겠다.

Ⅲ. 『단층』 지 작품의 행동주의적 특징

일제 파시즘하의 지식계급문제에 초점을 두고 전개되었던 우리문단 행동주의문학 논의의 본질을 기본 토대로 하고, 그 논의의 구체적 성과였던 함대훈의 창작방법에 유념하는 한편, <다이빙>이 보여주는 변용된 특징들을 고려한다면, 『단층』지 작품들에서 다음과 같은 행동주의적 면모들을 살펴볼 수 있다.⁵⁾

4) 함대훈; 지식계급의 不安과 조선문단의 장래성, 『조선일보』 (1935.3.30~4.6)

5) 본고에서 함대훈의 창작방법만을 행동주의 작품 파악의 중요한 척도로 삼은 것

1. 지식계급문제 - 무위적 인물

주인공들은 비교적 부유한 집안의 자제이며, 한때 프로문학운동에 가담했거나 심취했던 지식인으로, 대학졸업 후까지도 지식계급(문학가 또는 철학자)으로서의 이상을 버리지 못하고, 무위도식하는 인물이다.

하루종일 잠자기와 꾸꾸기로 소일하는 것, 관념의 유희행각, 자기내면의 식에 대한 이중적 관찰, 의도적인 바쁘게 보이기 행각들은 무기력한 지성의 '소극적 퇴폐'를 구현한 것인데, 때로는 의식의 분열상태나 자의식의 과잉상태로까지 비취지며, 심리주의 작품으로만 단정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그것을 극복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행동의지를 드러내기 위한 작품전개상의 장치이며, 잠재의식을 지배하는 "에스프리의 자발성"을 보이기 위한 것이므로, 즉 주인공의 의도에 의해 철저히 계획된 것이므로, 심리주의나 주지적 경향의 행위와는 다르다.

이는 특히, <馬券>의 전반부에 보이는 '만성'의 무위적 삶, 철저히 계획된 가면의 삶, '바쁘게 보이기'와 '잠'의 상태, <區區>에서 자기의 내면세계까지도 객관화 시키는 철저한 이중적 사고, 이중적 인식 수법, 정상적인 외부 세계에 대한 비웃음과 비인간적 상황에의 용납, 행위, 외부 세계(타인)에 대한 객관적 관찰 행위 등이, 모두 나중에 실천 또는 행동을 위한 전제상황이라는 점에서 명확해진다.

유항림 <區區>의 주인공 면우는 세심한 샌님이었지만, 졸업 후 기생 록주와 기동서방 관계를 맺고 할 일 없이 소일하면서, 문학이나 찾으며, 누워서 먹길 바란다.

면우는 관념적 장난의 명수이며, 아이러니한 작위적 인물이다. 자신의 내면세계까지도 객관화시키고 철저히 관찰하는 이중적 사고, 이중적 인식의

은, 그것이 우리문단 행동주의문학 논의가 산출한 유일한 창작방법론이며, 또한 그 내용면에서도, 우리문단 행동주의 논의의 전체적 특성과 대체로 부합되는 창작방법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문단 행동주의 논의의 특성이 주로 프로문학적 지식계급문제에 치중하여 전개된 것이라면, 함대훈의 창작방법도, 같은 맥락이었던 함대훈의 지식계급론에서 산출된 것이기 때문이다.

소유자이다. 정상적인 세계나 가치관에 대해서는 비웃고, 전도된 가치나 반응을 용납하고 기뻐하며,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실망시키려 애쓴다. 이러한 증상은 어머니의 신세타령이나 눈물조차 연기일지 모른다고 객관적으로 관망하는가 하면, 동시에 자기 자신의 반응도 함께 관찰하는 데서 극명히 드러나며, 기생 록주의 순정을 짓밟은 뒤에 쾌락을 느끼며, 근조의 도둑질을 기뻐한다거나, 근조가 거리에서 망신 당하기를 기대하며 몰래 뒤따라다니는 행위 등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무기력하지만은 않다. 철저한 논리적인 사유와 비판을 통해, 무기력한 지성에서 탈피하고, 실천적이고 행동적인 삶을 살려는 끊임없는 '갈등'을 보여준다. 결국 생활인이 된 근조의 등장으로 인하여 행동을 느끼고, 행동적인 삶의 결심을 굳히게 되기 때문이다.

구연묵 <유령>의 주인공도 무위도식하는 인물이다. 동경 유학에서 돌아온 영식은 Y고보 교사자리가 있지만 신념이 생기지 않아 택하지 못하고, 책읽기로 소일하며, '신념' 문제로 갈등하고 있다. 이에 대해, T교수는 실업방면으로 나가주길 바란다.

김이석 <환등>의 주인공 '나'도 무위도식하는 인물이다.

주인공 '나'는 아버지의 친구(죽마고우)의 손에서 학교를 나왔으며, 끝내 학교에서 쫓겨난다. 그후 아버지의 월급 봉투를 들고, 서울로 올라와 하숙하면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나 무위도식한 생활을 한다. '무력과 허위만을 감지하는 주인공은 기생 탄원과 관계를 맺고, 경회와도 관계를 맺는다.

2. 일제 파시즘의 패배감과 불안 - 이데올로기와 생활 간의 갈등

또 이들 작품 대부분이 한때 프로사상에 심취했던 주인공이 프로문학의 퇴조후 가중되던 파시즘에 대한 패배감에 젖어 불안을 느끼는 상황으로 설정되어 있다. 신앙과 같았던 이데올로기(지성, 이론)가 아무런 도움이 못되는 절박한 현실(외적 압박상황)에서 지성의 허망함을 느끼고, 거취상의 문제로 갈등하는 불안한 상황이다.

거취상의 불안은 주로 취직문제 또는 연애문제로 설정되어 있다. 지성이나 문학자, 철학가로서의 이상을 버리고, 절박한 현실생활 또는생계를 위해

이상(개성)에 맞지 않는 직업(실업가)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로 갈등하며, 신념(윤리, 이론상의 논리)이 서지 않아 불안을 느끼는 것이다.

앙드레 말로 작품과는 달리, 이들 작품이 비정치적이고 비모험적이지만, 파시즘의 압력으로 침체된 지식계급의 절박한 현실상황은 다분히 정치적인 것이다.

<구구>의 주인공 면우는 지하운동에 뛰어들었던 때의 세계관을 못버리고 습관적 독서벽을 가진 소위 '유물론적 관념론자'이며, '젓비린내 나는 이상주의자'로서, 처세에 능숙하지 못하고 갈등과 회의를 계속한다.

면우의 '가출'과 유곽에서의 '방황'은 행동적 삶과 가문의식 간의 갈등을 의미한다. 면우는 웅색한 지식(기성 질서·윤리)을 탈피하고, 발랄한 청춘의 의지대로 행동하려는 결심을 보이지만, 어머니의 삶으로 표상되는 가문의식 또는 장자의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록주의 유곽에서 방황한다. 록주는 면우의 내면세계에 숨겨진 '순정 및 발랄한 청춘'을 상징하는 분신이며, 면우가 추구하는 '행동적인 삶'의 목적물인 것이다.

구연목 <유령>에서는 파시즘에의 패배감에 젖은 주인공의 이상과 직업 선택 사이의 갈등을 볼 수 있다. 작품 속의 등장인물들은 모두 한때 프로문학에 또는 프로문학 운동에 가담했던 지식인들로서, 토론을 통해서 인간의 현실과 그 현실을 수용하여, 영위하는 "신념"의 우위성을 강조한다. 또 현실의 모순을 뛰어넘어 '신념'을 위해 행동하는 능동정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행동주의 사상을 반영한 것이다.

T교수와 영식의 관계는 <다이빙>의 설정과 유사하다. T교수는 영식이 문학이나 철학 방면에 뜻을 두었다면 교원 생활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며, 문호가 안될 바에야 실업가로 나가길 바란다.

이러한 상황은 <다이빙>에서, 경영부진한 주택회사의 재건을 강요하는 아버지와, 사업가로서의 의지도 문학자로서 재기할 결의도 가지지 못하는 주인공 龍二와의 관계와 같다.

3. 지성의 허망함과 행동정신의 구현

주제의식으로서의 행동의지와 능동정신의 구현은, 지성의 허망함 또는

이데올로기 편향성과 자의식 과잉상태를 인식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함대훈이 제시한 것처럼, 행동불능에의 인식, 냉소하는 이지, 지식을 취급하여 현실을 해체하는 理智, 범람하는 사상과 퇴색된 현실, 창작이론 때문에 창작을 잊고, 생활이론 때문에 생활을 잊는 현실을 그리며, 주인공은 그 속에서 초조와 불안을 느끼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는 결국 주인공이 결단성 있는 행동을 보이는 결말로 이어지게 된다.

신념을 가지지 못하고 갈등하던 주인공이 능동적 의지로서 결단을 보이는 계기는 주변인물인 가족, 친구를 통해서 마련된다.

지성(이성적, 윤리적 삶)의 허울을 위해서, 청춘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의 실천적 삶(용기있는 삶 또는 애정)을 포기하는 주변인물들을 통해서, 지성(이론과 신념)의 허망함을 비판하고, 이론 없는 무작정한 행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행동주의 이전의 모든 문학사조들이 보여주었던 이데올로기 편향성 또는 자의식 과잉상태를 비판하는 행동주의 정신의 반영인 것이다.

단층과 소설은 지식인의 무력감과 허위 생활을 다루면서도, 그 의식의 근거에는 행동과 능동의지에 대한 갈망을 짙게 깔고 있다.

<마련>에서 만성이 지성의 허망함을 자각하게 되는 동기는 종서와 혜경이 벌이는 두 위신의 경주이다. 결혼이 안될 경우 자기 위신만은 견지려는 경주 끝에, 종서와 혜경은 그들의 사랑과는 다른 쪽으로 곧 '우정과 연애로 결혼을 분리' 하는 정반대의 상황으로 결론을 낸다. 똑똑한 이성적 인간이 되려면 연애를 부정해야 한다는 이들의 논리의 상호작용 때문이었다. 이들의 애정파탄을 통해 지성의 허망함을 자각하고 만성은 자아 회복을 위해 밤새 뒤척인다. 결국 생의 문제에는 이론이 필요치 않음을 인식하며, 또 '形骸의 생활' '無爲의 생활'을 자각하고, 이를 버릴 용기를 내는 것이다.

유항림 <구구>에서, 이상과 처세 사이에서 갈등하며 무위도식하던 면우 앞에, 한때 함께 학생운동에 뛰어 들어 지하운동까지 벌였으나 완전히 변하여 생활인이 된, 근조가 나타나자, 면우는 대비하여 갈등을 겪는다.

근조의 등장으로 인해 행동을 느끼고, 행동과 지식 간의 분열이 자신을

‘변명의 생활’로 떨어뜨리고, ‘비겁한 인격’자로 분열시켰음을 인식하게 되며, 행동적 삶에의 결심을 굳히게 된다. 또한, 록주에의 순정도 확인한다.

<유령>에서 영식은 친구 승호와 태섭과 함께 知性과 行動과의 관계에 대해 토론한다. 승호는 지성보다 적극적 행동을 우위에 두나, 태섭은 강요되는 행동에 대해 고민하는 현대의 소극적인 지성에 더 중점을 둔다. 태섭을 비판하는 영식의 입장은 행동과 관련된 적극적인 知性을 요구하는 입장이다.⁶⁾ 영식은 현대 지식인의 고민을 ‘反파쇼적’인 일시적 현상이라고 파악한다. 영식은 행동과 능동정신을 지식계급의 문제로 보고, 프로문학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영식은 무위한 책읽기에 갈등을 느끼고, 지성에의 환멸을 느낀다. 영식은 무언가 속에서 솟구치는 욕망과 막연한 관념에서 탈피하여 人間性 있는 상태로 현재의 상태를 넘어서려는 용기와 신념을 갈구하는데, 이는 행동주의 정신의 발현이다.

또 영식이 지성의 허망함을 자각하는 것은 꿈을 꾸는 장면에서도 뚜렷이 드러난다. 영식은 允培와 등산을 하다가 비를 만나 피할 곳을 찾아 헤메는 꿈을 꾸는데, 생활이 어려워 현실이 절박한 윤배는 영식에게 ‘유령’이라고 절규한다. 자기는 되는대로 살겠다고 절규한다. 꿈에서 깨인 영식은 환경이 절박한 윤배의 눈으로 보면, 자신은 유령일지도 모른다고 자인한다. 또 그 헤메이든 꿈은 꿈이 아니고 현실 속에 비친 자기의 그림자였다고 자인한다.

…생명에 대한 자연의 침해가 있는 것과 같이 인간에 대한 現實의 침해는 무시로 존재해 있다. 그러나 비가 내리기 전에 집을 짓는 것은 금수도 하는 일이 아닌가. 되는대로 살자는 것도 한개의 理論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의 침해가 절박되기를 기다려 思惟를 시작한 때문이 아닌가. 나는 과연 유령일까…?⁷⁾

김이석 <환등>의 주인공 나도, 행동을 잃은 수동적 태도와 무력함을 인식하고, ‘행동이 봉쇄된 이데올로기’의 허위를 인식하며, 불안해 하며, 능동적 의지와 행동을 갈망한다. 그는 어제 저녁 잡지 『문학지대』에 난 자기

6) 구연묵;<유령>, 『단층』 제2책 (1937.7), pp. 30~32.

7) 구연묵;<유령>, 앞의 책, pp. 37~38.

소설 「花癡」에 대한 평을 읽고 충격을 받는다. 그는 「화옹」이란 소설에서 현실에 대한 능동적 의지와 추구력 있는 리얼한 소설을 써보려 하였으나 실패한 것을 인식한다. 환동의 주인공 '나'처럼 당시의 문학가는 행동력 있는 작품, 현실에 대한 능동적 의지가 담긴 작품을 쓰려고 고민하였음이 작품 곳곳에서 감지된다. 또, 주인공 '나'는 자신의 무력과 허위, 소시민성과 자신의 결백성을 반성하며, 행동을 잃은 수동적 태도를 반성함으로써, 이데올로기보다는 행동을 갈망하고 갈등하는 지식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김이석 <감정세포의 전복>에도 주인공의 갈등을 통해서 행동정신, 능동 의지에의 갈망이 표출된다. 주인공 '나'는 극단에 발을 들이지 않고 때묻은(철학, 문학 공부의) 생활로 생활을 풍부하게 영위하지만, 행동이 결여된 신념과 갈등하며, 무기력한 현실을 행동으로 뚫고 나갈 힘을 갈구한다. 다음은 <다이빙>의 마지막 대문과 유사하다.⁸⁾

그러나, 현실의 미련은 행동에 남아... 꺼졌든 정열은 다시 혈관에 흐르며
진리와 함께 힘차게 행진하려는 욕심이 몸을 싸고 이글에줄하였다.⁹⁾

이휘창 <기사창>의 주인공 '변식'도 현실인식과 행동의지에의 갈망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변식이 富士山の 雪頂이 보이는 동경의 아파트에서 잠이 깨이는 부분은 주인공의 현실에 대한 집착, 긍정을 보여주며, 이는 무기력한 갈등에서 행동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으로 설정된 것이다. 변식은 어머니의 병환, 죽음을 지켜보며 허무 불안을 느끼며, 죽음에 대해 무기력한 인간에게 증오를 느낀다. 또한 지금까지의 생활(민중운동)에 대한 회오를 느끼게 된다. '자아'를 모르던 생활에서 그리고 죽음에 대한 불안, 허무, 고독을 벗어나는 것은, 앙드레 말로의 <인간의 조건>에서와 같은 주제이며, 행동주의의 기본의식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변식의 내면의식에는 현실을 인정하고 내부 현실을 감지하려는 욕구로 가득 차 있다.

8) <다이빙>은 “강요해도 강요해도 일어서 나올 소질의 내부적 進化가 외부현실의 압제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는 주인공의 강한 푸념으로 끝난다. (久松潛一 外 4人 共著; 『現代日本文學大事典』, 明治書院, 1965, p. 980)

9) 김이석; <감정세포의 전복>, 『단층』 제1책, (1937.4), p. 10.

갈등을 일으키던 주인공은 座의 레퍼토리 보고서와 함께 받은 혜원의 편지에 기뻐하며, '괴롭던 중에서 간신히 안온한 현실을 붓잡은 사람처럼... 안심'하다가 「공연」 「행동」 「富士山」 「스페인동란」 이런 문구를 발견하고 놀라면서 편지를 떨어뜨린다. 또 民衆을 떠나는 것이 가능한지를 생각한다. 그가 그동안의 '민중'에 몰살시켰던 '자신의 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행동력 있는 현실인식을 갈구한다. 그러나 민중을 전혀 떠나지 않기로 한 것은, 행동주의를 프로문학의 연장으로 작가가 생각한 까닭으로 보인다.

또한 작품 곳곳에서 드러나는 개인주의자로서의 인식이나 '스페인동란과 행동'이란 문구에 놀라는 행동은, 변식이 앙드레 지드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음을 드러낸다.

지성의 허망함에 대한 인식과 이론에서의 탈피, 또 행동정신에 대한 갈망과 실천 등등의 행동주의문학의 주제의식을 性문제와 관련시킨다면 D.H. 로렌스의 문학과 사상에 접맥될 수 있다.

이는 기존윤리(이성, 지성)에 억압된 생활을 과감히 탈피하여, 성적매력(행동욕구)이 끌리는 데로, 그 욕구에 충실한 삶(행동)을 살리는 내용으로 구체화되는데, <구구> <자극의 전말>에서 잘 구도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최정익은 비평 《D.H.로렌스의 性과 自意識》(『단층』 제1책, 1937.4)에서, 자의식 과다증에 걸려 강렬한 반응과 적극적 능동성을 보이지 못하는 것이 현대 지식인의 전형상이라 규정한 다음, D.H.로렌스의 문학사상은 자의식을 배격하고, 약동있는 육체를 옹호하며, 창조성 가진 정신의 우위성까지도 高讚한 것으로 평가한 바 있는데, 최정익이 로렌스를 행동주의의 일단으로 간주한 증거이다.

따라서 그의 작품 <자극의 전말>(『단층』 제2책, 1937.7)은 <채털리부인의 연인>과 같은 구상을 보이면서, 행동을 갈망해 오던 주인공이 행동의지의 실천으로서, 하숙집 처녀 에미꼬와의 육체적 사랑을 받아들이는 내용으로 구현되어 나타난 것이다.

로렌스의 유행문제가 일본문단에서도 행동주의의 한 측면으로 논의되었던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다(10)

10) D.H.로렌스의 「性과 自意識」(『단층』 제1책, PP.103~122)에는 崔正翊의 작가

4. 행동지향적 결말과 관념성

일본문단에서의 행동주의 작품들이, 작품구조상 완벽한 구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아무 구체성 없는 관념적 결말을 보인다는 사실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우리문단에서 행동주의 작품으로 시도된 것으로 보이는 『단층』지의

의식으로서 행동주의 사고가 반영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내용의 대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대의 문학을 「위기의 문학」, 「비판의 문학」이라고 하는 말은…지성과 영의 소치이다. 이 지성의 질곡을 탈피하고 비판적 계단을 벗어나 창조적인 문학으로 복귀하려는 노력은 현대 문학에 팽창해 있다. …인간의 새로운 행동성을 탐구하려는 앙드레 지드나, 지적이 아닌 근원적 인간가치의 전환을 성취한 니체 등 幾多의 문학자가 제창한 새로운 모랄이다. 인간성의 탐구와 그 진실성을 발견하려는 노력은 這般의 소식을 증명하는 바이다…그들은 다만 지성이 인간의 창조적 능동성을 覺醒시키고 고정시킴을 경계할 따름이다…

이들은 순수한 지성에 대해서는 소극적 태도를 취할 뿐, 또 지적인 자의식에 대해서는 옹호하려는 경향을 가졌다. 현대는 확실히 이 ‘자의식’의 과다증에 걸려 있는 것이 사실이다… 외계의 자극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에 대한 지식만이 풍부해질 따름이요, 그 자극에 대한 강렬한 반응과 적극적 능동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현대지식인의 전형상일 것이다…

위와 같이 최정익은 현대의 모든 문학자, 지성인을 ‘자의식’의 과다증에 걸려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능동성을 보이지 못하는 전형상으로 규정하고, 반대로 로렌스의 관점, 즉 자의식을 증오하고 배격하며 생명의 약동이 있는 육체를 옹호하고 또 창조성을 가진 정신의 우위성까지도 고찬(高讚)한 관점에서 로렌스의 사상, 문학과 생애를 논하였다.

로렌스는 리얼리스트이며, 그의 動物主義는 나아가 活力的이고 신화적이고 상징적인 것을 찾았다고 보며, 그가 찾은 인간, 그 인간으로서 새로운 세계 건설의 目的을 달성하려는 정열적 의도를 살펴보았다.

최후로 性만으로 새로운 생활을 수립하려던 인간의 정신적 의식은 너무나 강렬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 그 만년에 이르러 그의 ‘육체의 신비화’가 그 자신을 현상타파자 보다도 현실 도피자로 만들어 버렸다고 결론 짓고 있다.

이러한 최정익의 로렌스 논의는 일본에서 행동주의와 능동정신 논의의 확산으로 행해졌던 사실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자의식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능동정신의 측면에서 이다. 그러므로 이는 우리의 행동주의 논의의 연장 선상에서 고려 할 수 있다고 본다.

몇 작품들도, 행동의지를 작품 속에서 논리적인 토론과정을 통해서 관념적으로 표출하는 한편, 아무 구체성이 없는 관념적 결말을 보이는 공통점이 있다.

주인공들은 지성의 허망함과 이론 없는 무작정한 행동의 필요성을 인식한 끝에, 순간순간의 감정이나 현실이 허락하는대로 도발적 행동을 취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밤새 뒤척이며 갈등하는 결말을 보인다. 무작정한 가출이나, 도발적인 애정행각 등이 그것이다. 이는 주인공이 종전의 억압된 상황과 소극적 퇴폐로부터 탈피하여, 새로운 세계로 뛰어드는 지점에 서있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마련>은 주인공 만성이 무작정한 가출을 행하는 행동지향적인 결말을 보인다. 만성의 家出은 진정 가슴 속 깊이 잠재되어 있던 능동적 의지와 행동지향성의 발현이다.

밤새 뒤척이며 지성의 허망함과 행동의 필요성을 인식한 만성은 이튿날 진규에게 C대학 학생증과 철도할인권 빌리고, 은행, 금융조합, 우체국을 돌아 오며, 종서를 찾아가 동경으로의 무조건한 家出 결심을 알린다.

여기서 만성은 자신의 처지를 “무너지는 집에서 뛰어나오는 사람”에 비유하면서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도전이라고 피력한다. 또한 과거의 無爲생활은 “形骸의 생활” “통용치 못하는 ‘루블’ 지폐”이며, 그에서의 탈피는 알지 못하는 미래에의 도전이며 “馬券을 사는 도박”이라고 파악한다. 한편 이런 탈출에 있어서 변증법과 같은 이론은 허망한 것이라고 경멸하기도 한다.

만성은 初冬の 비내리는 역에서 밤차를 타고 떠나는데, 소설 맨 끝의 부기 <어느 장편의 일부인 단편>가 상징하듯이, 미래의 능동적인 삶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구구>에서 먼우는 웅색한 지식(기성질서, 윤리)을 탈피하고 발달한 청년의 의지대로 행동·실천하려는 결심을 보이지만, 가문의식과 장자의식 때문에 집에서의 완전한 ‘탈출’을 보이지 못하고, 노정인 ‘유곽 또는 골방에서의 머무름’으로 줄거리가 끝난다. 이는 작품 끝에 붙은 附記(‘衢路’의 일부인 단편’)가 말하듯, 주인공이 갈림길(衢路)에 끝까지 머물러 갈등

하고 있는 상태를 상징하는 것이다.

<유령>에서는 관념적 결말을 보인다. 영식은 끝까지 행동하기 위한 신념의 선택을 위해서 갈등을 겪으며, 어떤 결말을 보지 못한 채 작품이 끝난다. 이 작품은 주인공이 현실과의 갈등에서 관념적인 대립과 현실 극복의 지만을 보여 줄 뿐이지, 그것을 행동으로는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역시 그렇다. 내가 지금 이렇게 뱃장을 부리고 있는 것은 집에 돈이 있다고 막연하나마 그것을 믿고 있는 탓인지도 모른다. 우연이다. 나의 의욕과는 별개의 우연의 산물이다. 그것이 우연의 산물이라는 것을 알 때부터 나에게는 그것을 거부해야 할 양심과 췌장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그러나 나는 대체 무엇을 해야 옳단 말인가. 영식은 이러한 생각을 하며 자리를 뒤채이었다.…11)

<기사창>의 주인공 나도, 결국 현실에 뛰어들기 위해, 눈물을 흘리면서 술집(갈등의 장소)을 뛰쳐 나오므로써, 행동지향적 탈출이라는 결말을 보인다.

…산산 부서지는 유리조각 그것처럼 한층 더 절첩을 집어먹은 계집이 술병을 기울여 처들은 채 황급히 따라일어섰을 때는 변식은 벌써 술집문을 원수처럼 박차고 거리 복판으로 뛰어나왔을 때이었다…12)

이는 일본의 행동주의 작품 ‘脫出’과 같은 결말이다. 행동을 향한 욕구로서 ‘탈출’은 주인공의 행동을 위한 첫걸음으로 상징되며, ‘눈물’은 행동의 필요성에 대한 절실한 깨달음을 상징한다. 『단층』지의 다른 작품처럼 이 작품도 행동으로 옮기는 상징만으로, 관념적으로 끝날 뿐이다.

끝부분의 끝맺음 ‘거리를 헤매는 부분’이나 작품 전체를 흐르는 개인의 갈등, 심리묘사 부분은, 행동주의 사조가 심리주의, 초현실주의, 불안사조등의 경향과 혼류되었던 문단상황과 관련있다고 본다.

11) 구연묵;<유령>, 『단층』 제2책, pp. 38~39.

12) 이휘창;<기사창>, 『단층』 제1책 (1937.4), pp. 58~60.

IV. 행동주의문학 논의와 작품상의 관념적 변용

이상에서 살핀 것처럼, 우리문단에서 전개된 행동주의 논의의 본질과 전체적 특성, 그리고 불문단 행동주의의 본질을 기본 토대로 하고, 일본문단에서의 변용사실을 고려한다면, 우리문단에서도 행동주의가 미숙하게나마 반영된 작품은 더러 찾아볼 수 있다고 본다.

행동주의의 본질적 개념들, 즉 능동정신, 에스프리의 자발성, 의지의 자유주의, 인성의 전체성 파악 및 행동의 필요성 등은 우리문단의 작가들에게도 그대로 인식되어진다. 그러나, 프랑스 작가들이 사상을 뛰어넘어 인간의 문제와 인류공동의 문제를 위해 정치적, 역사적 사건에 직접 뛰어들었고, 그 혁명적 모험과 목숨을 건 탐험들을 작품 속에 담았던 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변모되었다. 지식계급의 불안과 무위한 삶, 신념, 이론과 행동 사이의 갈등 문제를 관념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변모한 것이다. 물론 작품 구성상의 완벽을 보이지 않고, 주제의식으로서 '행동의지의 표명'은 주인공의 상황설정이나 주인공이 벌이는 논리적 토론 등을 통해서 주로 관념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변모의 원인은 당시 우리문단의 행동주의 논의가, 프랑스 행동주의의 본질인 '인간성의 전체적 파악'과는 무관하게, 지식계급문제에 치중하여 전개되었던 특징과 관련시킬 수 있겠다. 우리문단이 당면한 사회적 현실에 대한 관심에서 행동주의가 환영되어졌고, 그것은 지식계급의 불안과 문단의 침체를 타파하는 수단으로만, 나아가서 그것의 근본 원인인 일제 파시즘에 대한 대항양식으로만 전개했던 것과 같은 현상이라고 본다.

함대훈이 제시한 구체적 창작방법¹³⁾ 또한 단층파 작품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이후 우리문단의 행동주의 작품이 정치적, 혁명적 모험과는 다른, 지식계급문제에 초점을 두고 관념적으로 구현되는 근본동기가 되었다고 단정해 볼 수도 있겠다. 함대훈이 제시한 「행동불능에의 인식, 냉소하는 이지, 지식을 취급하여 현실을 해체하는 理智, 범람하는 사상과 퇴색된 현실, 쇠약된 문학, 창작이론 때문에 창작을 잃고, 생활 이론 때문에 생활을 잃는

13) 威大勳; 지식계급의 不安과 조선문단의 將來性, 『조선일보』 (1935.3.30~4.6)

현실, 생활의 곤란을 몸으로 표시하는 것, 딜레마, 초조와 불안 등」의 면모는 실제로 단층파 작품이 보여주는 주된 상황설정이며 주제로 나타난다.

그러나 당시 문단에서 로만개조론이나 사회주의 리얼리즘 논의처럼 실제 작품 창작이 이론적 논의에 크게 못미쳤던 현상이 허다했음을 참고로 하고, 일본문단의 행동주의 작품들도 ‘행동주의 이론이 문학적 반영면에서 충분치 못했다’는 미흡한 평가를 받은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¹⁴⁾

그렇다면 김문집이 작품부재를 근거로 우리문단과 동경문단에서 ‘진정한 의미의 행동주의가 없었다’고 한 평가나 (‘동경문단의 近貌-행동주의를 중심삼아’, 『조선일보』, 1936.14~8), 별다른 성과 없이 휴머니즘론으로 전환되었다고 한 백철의 견해 (『신문학사조사』, 신구문화사, 1982년 개정판, p.465) 역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 한 가지 강조할 것은, 그간 단층파의 몇 작품들이 흔히 심리주의 작품으로만 단정되어 옴으로써, 그 작품에 부가된 행동주의적 요소가 등한시 되어왔다는 점이다.

최재서가 「단층파의 심리주의적 경향」(『조광』, 1937.11)에서 이상의 <날개> <종생기> 등을 심리주의와 자의식 세계의 문학으로 지적한 뒤, 「단층」파도 심리주의적 경향, 자의식 세계의 문학으로 지적하였으며, 특히, 구연묵의 <유령>, 최정익의 <자극의 전말>, 유험림의 <구구>, 이 세 작품의 의도는 “사회적 양심과 심리를 가지면서도 그것을 신념에까지 윤리화시킬 수 없는 인테리의 회의와 고민을 심리적으로 그리려는 것”이라 했던 것이다.

그 뒤 백철은 다시 이들을 “주지파 문학”의 한 영역으로 넣고 있다. 이들이 “과학적 분석을 중시하고, 심리학과 프로이트 등의 무의식의 분석을 중시한 점”으로 보아서였다. 최근 金時泰님의 평가도 비슷하게, ‘심리주의 소설의 형성’과정의 것으로 보고 있다.¹⁵⁾

14) 이외에도 일본문단의 행동주의 작품은 ‘수법의 새로움을 보여주는 데 끝난다’든지, ‘소극적 퇴폐로부터의 탈피라는 관념성을 보인다’는 점, 또 ‘분열적 의식을 극복하여 행동에 이르려는 의욕에 그쳤다’든지, ‘소설의 기법이나 주제면에서 새로운 취향을 집중시킨 것’이라는 등등의 평가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15) 김시태, 지식인의 무위와 속죄양 의식, 『문학과 비평』 1권 2호, (탑출판사, 1987.

이들의 제 평가는 의식의 흐름수법에 의한 내면의식의 분석, 자의식 세계에 초점을 둔 것이지만, 이들 작품은 또다른 행동주의적 특성을 담고 있다. 이런 상태는 주인공의 의지에 의해 의도적으로 계획된 것이며, 곧 잠재의식을 지배하는 에스프리의 자발성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심리주의와는 다른 것이다. 또 행동의지를 드러내기 위한 작품전개상의 장치일 뿐이다.

유향림을 비롯한 단층파 소설가의 작품들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심리적인 흐름, 즉 지식인의 무력감과 허위 생활을 다루면서도, 그 의식의 근거에는 행동(실천)과 의지(능동의지)에 대한 갈망, 현실에 대해 능동적인 태도를 표명하려는 갈망이 짙게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에 이미 우리 문단에도 행동주의 논의가 전개되었었고, 이와 관련하여 지드류의 행동주의 소설에의 지향 욕구가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었으므로 '단층파' 소설의 특질을 '심리주의'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들 작품 속에 강렬하게 부가된 행동주의의 요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문단에서 더러 행동주의 사상을 강하게 담고 있는 작품들이 흔히 심리주의 작품으로만 단정되어 온 이유는, 다음과 같은 小松淸의 견해와 그에 바탕한 한효의 견해와도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小松淸이 「행동주의와 프로레타리아문학」이라는 논문 속에서 밝힌 견해 가운데 주목해야 할 것은, '행동주의는 프로문학자들이 프로문학의 부활을 꿈꾸어, 프로문학이 19C 리얼리즘, 심리주의의 奮發을 쓴 것'이라는 부분이다. 이러한 小松淸의 견해는 이후 우리문단에서 행동주의의 요소를 띠고 있는 단층파 작품이 심리주의적 리얼리즘 작품으로만 단정되어 온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¹⁶⁾

한효 역시 행동주의를 '자신의 내성적 심연에 퇴화하여 인테리의 옹호를 부르짖는 것, 또는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가 개인의 의식과 행동 속에서 최후의 활로를 찾으려는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행동주의에 대한 평가 때문에, 작품상의 반영과정에서 행동주의의 요소는 심리주의적인 면모와 거의

여름호), pp. 337~340.

16) 韓 曉, 「行動主義 文學論」批判-知識階級과 行動精神-(4~5), 『조선중앙일보』 (1935.10.23~24)

유사하게 또는 섞여서 드러나게 된다. 행동주의 요소를 강하게 띠고 있는 작품을 심리주의적인 작품으로만 단정하게 하는 주된 요인이 된다.

즉, 지식계급의 고뇌와 불안, 인테리의 옹호 문제, 인간적 내성애의 침잠 등은 행동주의 작품의 주된 주제로, 관념적으로 표출되는 것이다.¹⁷⁾

V.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 본 바를 종합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우리문단의 행동주의 논의가 프로문학적 세계관에 의해 지식계급의 문제로만 전개되어 '인간의 전체성 파악'이라는 프랑스 행동주의의 본질과 무관하게 변용되어졌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우리 행동주의 사상의 특질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는 작품들이 몇몇 있었다. 특히 단층파의 작품들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 행동주의의 요소들은 작품의 주제 또는 구성을 통해 관념적으로만 반영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행동주의문학 작품의 창작면에서도, 프랑스 행동주의 작품의 본질과는 다르게 변용되어졌다고 볼 수 있다. 프랑스 작가들이 인간의 본질을 파악하고 인류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적 사회적 혁명과 목숨을 건 탐험을 감행하였고, 그 체험의 기록으로서 작품을 남겼던 것과는 전혀 무관했다는 한계성을 띤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문단의 행동주의 작품은, 작가의 행동과는 무관하게, 작가의 의도 또는 결심을 작품 속에 관념적으로만 반영시킨 것이 된다.

17) 한 효:같은 글(6), 같은 책, (1935.10.25)